

내년도 정부 예산 604조 4천억 편성

문 대통령 “재정 여력 있어”
“완전 회복·강한 경제 주력”
“작년·올해 확장 효과 실감”
“백신 확보·개발 예산 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재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할 운명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의당-너머서울 긴급간담회 안수경 보건 의료노조 서울본부 부분부장(오른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확충·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정의당-너머서울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대선 경선 투표...대전·충남 선거

1차 투표 결과 경선 흐름 좌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에서부터 지난달 31일 시작했다.

다음 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발표되는 이번 투표는 이 지역 권리당원 대상의 온라인 및 ARS 투표(5일간)와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다음달 4일)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3차례 나눠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강원 순회 경선 때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슈퍼 워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 서울을 피날레로 종료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경선에는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 등 6명이 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 선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다.

정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의회민주주의의 본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다. 지각 합류한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

정 의원은 21대 개원 당시에도 부의장

으로 내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거부했다.

국회는 그동안 민주당이 맡아왔던 정무(윤재욱

·교육(조혜진)·문제(이재이)·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현승)·예결특위(이종배)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



·교육(조혜진)·문제(이재이)·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현승)·예결특위(이종배)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

내년 병장 월급 60만 → 67만원

군당국이 내년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경항모 건조와 초소형 위성 개발 등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2년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 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 3,365억 원(2.0% 증가), 전력운용비 37조 8,912억 원(5.7% 증가)으로 이뤄졌다.

병장 월급과 병영 생활 여건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에서 내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 타결

오는 27일 본회의의 상정
8인 협의체 꾸려 논의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은 것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워낙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 끝에 이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합의안을 “사실상 추진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오는 27일 본회의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

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왔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서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빼가겠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